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1면	105년 전 선조 애국혼 기리며 한마음 뭉쳐	1
江原日報	온라인	동해 최북단 고성 저도어장 4일 올해 첫 입어	1
설악신문	온라인	고성군산림조합 간성에 신청사 개청	2
MBC 강원영동	온라인	심오섭 강원도의원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수상	3
江原日報	21면	[동정] 문관현 도의원(태백)	4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문관현(태백)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하석균(위 왼쪽)·류인출(위 오른쪽)·최재민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원제용(원주)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06면	'매년 2만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춘천·강릉 조성 추진	5
강원도민일보	04면	김 지사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대체산업 육성 총력"	5
강원도민일보	07면	바이오의약품 밀착 지원 전략에 강원도 기대감 '업'	6
강원도민일보	12면	'태백 핫플' 주말 야시장 재미·맛 더한다	6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시 다각적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7
강원도민일보	09면	'품질 대란' 춘천 멜론 명성 복숭아가 잇는다	7
강원도민일보	05면	"가마우지떼 피하려다..." 영월 능동천 물고기 떼죽음	8
江原日報	17면	'육아기 단축 근무 확대' 저출생 해법은 글썄	9
江原日報	16면	철원 한탄강물윗길 21만명 찾았다	9
江原日報	10면	지역 축제 준비 분주한 홍천군	10
江原日報	12면	해변 이어 도심까지 ... 캠핑카 알박기 기승	11
江原日報	11면	주민과 함께 횡성지역 산림 가꿔요	11
江原日報	13면	속초 친환경 아파트 대폭 늘린다	12
江原日報	15면	정선 명품 전통시장 일제히 개장	12
江原日報	13면	인제 남북리에 도시생활공원 조성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료공백 종식 시급하다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FC 홈경기 열기 이어가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보이스피싱 피해 141억원, 철저 수사 뿌리 뽑을 때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2,000명 증원 빼기, 이젠 醫·政 대화로 풀어가야	17

江原日報

2024 04 02 ()

11

105년 전 선조 애국혼 기리며 한마음 뭉쳐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식
주민·학생 등 400여명 참가

【횡성】“105년 전 선조들의 애국혼을 이어받아 횡성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 한마음으로 뭉칩시다.”

제105주년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식이 성대하게 마련돼 ‘애국의 고장’ 횡성의 자부심을 일깨웠다.

횡성군과 횡성문화원은 1일

횡성보훈공원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강원지역 최초의 독립 만세운동 발생지인 횡성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에는 애국지사의 유족들이 참석해 일일이 군민들

에게 소개됐고 헌화와 분향, 우광수 횡성문화원장의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설명, 선언문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횡성에서는 1919년 3월27일부터 4월12일까지 도내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특히 4월1~2일 세 차례에 걸쳐 횡성장터에서 만세운동이 계속돼 도내에서 가장 격렬했던 만세운동으로 기록돼 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江原日報

2024 04 01 ()

동해 최북단 고성 저도어장 4일 올해 첫 입어

고성 동해안 최북단 고성 저도어장이 4일 입어를 시작한다.

고성군 등에 따르면 저도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최대 항금어장이다. 1972년 4월 최초로 개방한 이후 매년 4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가량 지역 어업인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저도어장은 문어와 해삼, 홍합, 해조류, 게류 등 다양한 해산물이 어획되고 있으며 연간 평균 25억원 가량의 어업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월14일부터 12월29일까지 총 260일간의 조업기간 동안 6,901척, 1만923명이 조업을 실시해 문어와 대게 등 총 94톤의 어획고를 올렸다. 위판금액은 24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어획량이 평균 84톤에 비해 10톤가량 오르며 어업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과 고성군수협은 저도어장 입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월선 방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업 구역 이탈 방지를 위한 경계 부표 설치를 완료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한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은 4일 새벽 어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 04 01 ()

설악신문

고성군산림조합 간성에 신청사 개청

5층 규모로 신축...1층에 금융점포 마련



지난달 27일 고성군산림조합 신청사 개청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고성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석)은 지난달 27일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는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김일용 군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기관·단체장,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고성군산림조합 신청사는 간성읍 기존 청사 옆에 35억원 가량이 투입돼 2022년 7월 착공, 5층 건물로 완공됐다.

1층은 조합의 금융점포가 운영되고, 나머지 층에는 병원과 약국 등이 입점한다.

기존 청사는 임산물 직매장으로 운영한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MBC 강원영동

2024 04 01 ()

심오섭 강원도의회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수상

홍한표

심오섭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달(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시상'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 의원은 강릉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돼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강원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조례,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0여 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치, 지방자치, 경영, 문화 등
대한민국 혁신 성장동력 가치를 인정받은
국회의원, 교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기업대표 등 10개 부문 38명에게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江原日報

2024 04 02 ()

21

◇문관현도의원(태백)은 2



일 오후 2시30분
강원랜드 그랜
드호텔 컨벤션
타워 5층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발
표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12



문관현(태
백) 도의
원은 2일
오후 2시
30분 강원

랜드그랜드호텔 컨벤
션타워에서 열리는 강
원랜드 K-HIT프로젝
트발표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10



소제21대·제22대 회
장이·취임식 및 제51
회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하석균(위
왼쪽)·류
인출(위오
른쪽)·최
재민 도의

원은 2일 오전 11시 원
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리는 원주상공회의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10



원제용(원
주) 도의
원은 2일
오후 3시
원주 빌라

드아모르에서 열리는
2024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 시·군 순회 간
담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06

‘매년 2만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춘천·강릉 조성 추진

강원경찰·도자치경찰위

강원도내 주취자 신고 접수가 매년 2만건 가량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강원경찰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춘천과 강릉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춘천과 강릉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각 지역 경찰서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강원도내에 주취자 응급의료센

터가 있는 곳은 원주가 유일하다. 경찰과 자치경찰위가 도내 빅3(춘천·원주·강릉)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매년 2만건 가량 발생하는 주취자 신고 때문이다. 강원청에 따르면 실제 최근 4년(2020~2023년)간 주취자 신고건수는 총 8만 7922건으로, 연 평균 2만 1980건 가량 꾸준히 발생, 하루에만 60건에 달한다. 지난해도 2만 2944건에 달하는 주취자 신고건수가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15일 운영을 시작한 원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3월 말까지

117명에 달하는 주취자를 보호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 평균 0.9명으로, 약 하루에 1명은 이곳을 찾은 셈이다. 문제는 병상 확보다.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취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내 병원들과 협의에 나섰지만 일선 병원에서 ‘병상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강원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춘천, 강릉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그 밖의 시·군에는 경찰에 구호를 요청하는 주취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등 주취자 일시 보호시설을 구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04

김 지사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대체산업 육성 총력”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행정력 집중

속보=김진태 도지사가 1일 “태백시의 대체산업 육성에 강원도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오는 6월 폐광, 900여명의 실업자와 3조원 이상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고용위기지역 조기 지정(본지 3월 29일자 1·4면)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김홍섭 강원노동지청장과 함께 고용 위기에 내몰린 폐광지역을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김홍섭 강원지방노동지청장, 이상호 태백시장 등과 장성광업소를 방문, 입궐 체험을 했다. 김 지사의 입궐은 정부에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강원도는 태백·삼척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이달 중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량적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김 지사는 “며칠 전 장성광업소를 입궐하고 많은 걸 느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량평가만이 아니고 정성평가도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인근에 청정메탄을 생산기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07

바이오의약품 밀착 지원 전략에 강원도 기대감 ‘업’

정부, 17조원 민간투자 뒷받침
2조1000억원 규모 예산 투입
도, 관련분야 강세 기업성장 유리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17조7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강원지역은 코스닥 상장기업 중 휴젤, 파마리서치, 에드바이오텍 등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비중이

높아 관련 산업이 지역 대표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전략·지원이 지역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경기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 회의’ (제5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첨단바이오

조성, 산업기반구축, 글로벌 진출 등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030년까지 17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15조원,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5개 육성 및 5대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첨단바이오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한

‘한국판 BioMADE’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의약품, 화장품 부문이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한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4년 2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강원지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35.5% 증가한 3억430만 달러다. 그 중 수출 5위 품목인 의약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한 1531만 달러를 기록, 중국·브라질·태국 등으로의 수출

이 증가하면서 해당 품목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 화장품의 경우 1198만 달러로 전체 품목 중 6위를 차지했다.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바이오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자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투자는 강원 바이오기업들의 발전 및 경기 극복에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의 지원 영향으로 지역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원 역시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선우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12

‘태백 핫플’ 주말 야시장 재미·맛 더한다

중앙로·황지시장 상가 등 3곳
도 공모사업 선정 6월 개장
메뉴 개발 등 지역축제 연계

MZ 사이에서 ‘관광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야시장이 태백에서 확대 운영된다.

태백시는 최근 중앙로 상점가, 황

지시장상점가, 장성중앙시장조합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주관 전통시장·상점가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황지시장상점가 ‘북적북적 신바람 남남머자길’에 2억원, 장성중앙시장조합 ‘장성탄빛흑면장군야시장’에 2억원, 중앙로상점가 ‘황부자머느리아시장’에 5000만원이 지원된다.

상인회와 시장조합은 이달부터 주말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모집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 특색 있는 매대 제작, 야간경관조명 설치, 메뉴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주말야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상인회는 여름 대표축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등과 연계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시민·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주말 야시장으로 조성,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야시장 공모사업에 지역 3곳이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시장에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색있고 경쟁력 갖춘 전통시장 야시장을 만들어가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10

원주시 다각적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중기부 창업 사관학교 공모 도전

원주시가다각적민생경제활성화대책추진에나섰다.

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원강수시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열고 서민

물가잡기방안등을논의했다.

이를통해시는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상시운영하고상하수도요금,종량제봉투가격등공공요금동결기조를유지키로했다.또축제행사장바가지요금근절을위해가격상한선을설정,합동단속을실시한다.착한가격업소에는배달료지원,원주사랑상품권추가할인등의혜택을추가지원키로했다.소상공인장기성장기반도조성한다.소공인에스마트장비,온라인마케팅지원등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를 오는 10월 착공한다.

이달엔 소상공인 창업 지원 공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공모에 도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기

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부론·포진 일반산업단지 2곳을 포함 2040년까지 총 1586만여㎡(480만평)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단계별 추진한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09

'품질 대란' 춘천 멜론 명성 복숭아가 잇는다

재배농가 273곳 급증 대표작목 시, 복숭아 관련 문학작품 공모 8월 축제 지역브랜드 홍보 모색

'없어서 못 파는' 춘천 멜론의 기운을 춘천 복숭아가 잇는다.

춘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복숭아 축제와 복숭아 문학전을 개최, 춘천의 대표작목으로 급부상한 복숭아 띄우기에 나선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이달까지 복숭아 문학전 작품

을 접수한다. 복숭아와 관련된 시나 사진을 받아 분야별로 시상할 계획이다. 작품들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복숭아 축제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축제에서는 복숭아 할인 판촉행사와 복숭아 체험·디저트 카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인디밴드 초청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춘천시가 이 같은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는 춘천 복숭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춘천 복숭아는 최근 들어 재배농가가 급증, 지역의 대표 작목으로 자리잡았다. 2020년 257곳이

있던 재배농가는 2021년 223곳, 2022년 210곳으로 줄다가 2023년 273곳으로 급증했다. 재배면적도 2020년 176.8ha에서 지난해 188ha로 늘었다. 춘천 복숭아는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춘천을 대표하는 이렇다 할 농산물 축제가 없었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춘천은 최근 들어 농산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복숭아가 이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하니원 멜론의 경우 판매 시

작과 동시에 동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디가야 살 수 있느냐'는 글이 빗발칠 정도다. 소양강쌀 역시 지난해 지역에서 수매한 쌀 1031t을 완판해 화제가 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복숭아를 비롯해 멜론, 딸 등 춘천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전국적으로도 우수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복숭아 축제를 개최해 춘천 복숭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이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05

“가마우지떼 피하려다...” 영월 능동천 물고기 떼죽음

저수지 탈출 수량부족 폐사 추정
악취심각 하천 생태계 오염
군, 하천수 오염원 규명 계획

속보=영월군 영월읍 장릉저수지와 인근 안산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가마우지떼(본지 3월 27일자 15면)에 이어 저수지 하류 능동천에 붕어 등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있어 가마우지떼에 의한 2차 피해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능동천 주변 걷기운동을 하던 주민들은 최근 4~5일 전부터 저수지에서 보훈회관에 이르는 200여m 구간에서 어른 손바닥 크기의 붕어 등의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죽어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또 일부는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폐사한 물고기들은 이미 썩기 시작해 심한 악취마저 풍겨 하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A(67·여·영월읍 영흥14리)씨는 “매일 오후 3시를 전후해 걷기운동을 하다가 악취가 나서 하천



영월군 영월읍 장릉저수지와 인근 안산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가마우지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1일 저수지 하류 능동천에 붕어 등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다. 가마우지떼에 의한 2차 피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기준

을 살펴 보니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해 있었다”며 “아마도 가마우지떼들의 먹이활동을 피해 저수지를 탈출했다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영월군은 1일 오전 직원들을 동원해 2시간여 동안 폐사 물고기 30kg을 수거했으며 2일에는 도보견환경연

구원과 함께 저수지와 하천수 채수를 통해 수질 오염원을 규명할 방침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일단 저수지에서는 폐사된 물고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가마우지떼를 피해 저수지 하류로 쫓겨난 물고기들이 수량 부족 탓에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

정했다.

한편 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포획단원 2명과 함께 공기총을 이용해 본격적인 가마우지 포획에 나섰다. 총의 사거리가 30~40여m에 불과해 실패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2024 04 02 ()

江原日報

17

‘육아기 단축 근무 확대’ 저출생 해법은 글썽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의 효용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부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된다. 또한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 예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

7월부터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업무 분담 동료에 월 20만원 ‘여전히 눈치 보인다’ 꺼려... “대체 인력 채용이 우선돼야” 지적

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3,188명으로, 고용노동부는 혜택 확대로 제도 이용자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관례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에서 7세 자녀를 키우는 직장

인 김모(38·퇴계동)씨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단축근무제를 이용하고 싶지만,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는 1명의 공백도 크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업무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지만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릉에서 3세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 최모(30·유천동)씨 역시 “공무

원의 경우 제도 이용이 수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단축 근무제 사용은 업무가 안난다”며 “기존 인원들로 육아 휴직·단축근무자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우려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의 55.6%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오미기자 omme@

2024 04 02 ()

江原日報

16

철원 한탄강물윗길 21만명 찾았다

3월말 폐장... 지난 시즌보다 관광객 9만명 늘어
군, 입장료 수입 등 경제 효과 120억 이상 추산

【철원】지난해 9월 개장한 철원 한탄강물윗길이 2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대표 명소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철원군에 따르면 2023~2024년 시즌 철원한탄강물윗길에는 2022~2023년 시즌에 비해 9만명이 늘어난 21만5,000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입장료 수입도 9억9,700만 원을 기록했고 4억5,9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방문객에게 환급하는 등 관광지 운영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120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탄강물윗길은 태봉대교~순담계곡까지 총 8.5km 길이의

트레킹코스다.

약 2.5km 구간의 한탄강 물위에 부교를 설치하고 지질명소인 송대소와 고석정, 등록문화재인 승일교 등 철원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을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달 31일까지 손님을 맞았고 현재는 폐장했다.

군은 물윗길을 상표등록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의 별’ 및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와 연계한 대한민국축제콘텐

츠 대상 수상 등을 토대로 물윗길의 관광상품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올해 하반기 다시 문을 여는 한탄강물윗길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불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江原日報

2024 04 02 ()

10

지역 축제 준비 분주한 홍천군

26일부터 3일간 산나물축제
별빛음악 맥주축제 등 다채

【홍천】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은 올해 지역 대표축제들의 일정을 확정하고 사전 홍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홍천문화재단은 최근 경제 축제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 행사 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축제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6회 강원n홍천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된 홍천산나물축제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의 강원산나물축제를 연계해 진행하게 된다. 홍천의 한돈과 산나물, 농특산물을 활용한 각종 산나물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철 홍천지역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8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올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예정돼 있다. 특히 축제 대표 이벤트로 육성되고 있는 '세계 Wet Dance 경연대회'는 벌써부터 해외 참가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겨울철에 열리는 '제13회 홍천강뽕뽕축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1일까지로 일정을 결정했다.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홍천강뽕뽕축제는 가족힐링형

행사로 온난화에 따라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설물을 구축하고 고객들이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색 테마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홍천의 대표 축제들은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축제장에 입점하는 상인들의 착한 가격 결정을 유도하고 관광객들의 니즈를 파악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2024 04 02 ()

江原日報

해변 이어 도심까지 ... 캠핑카 알박기 기승¹²

강릉 공영주차장 곳곳 발견
주민 불편 호소 ... 단속 촉구
시 “주차장법 시행 시 처벌”

【강릉】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해변에 이어 강릉 도심 주차장까지 점유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일 강릉 주문진 종합운동장 동편 주차장에는 캠핑카와 캐러밴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일부 캠핑카는 주차장을 2면 가량 사용해 일반 차량 주차에 불편을 줬다.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일부 캠핑족이 이곳을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이모(55)씨는 “해안가 주차장을 점유하던 캠핑족들이 이제는 도심지 주차장까지 쓰고 있다”며 “일부 캐러밴에서는 밤 늦게까지 파티가 벌어



◇1일 강릉 주문진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캠핑카와 캐러밴이 주차돼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릉 강남축구공원 내 주차장과 포남동, 교동 등의 공영 주차장에서도 캠핑카와 캐러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공용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에서도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조례상 주차한 지 72시간 경과시 차량이동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 견인 등의 조항이 없어 전화 연락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시 강제 견인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계도 등의 조치만 하고 있지만 주차장법 시행 시 관련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캠핑족 등의 자발적인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준·권태명기자

2024 04 02 ()

江原日報

주민과 함께 황성지역 산림 가꾸요¹¹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황성】“2024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가 9개 읍·면별로 추진된다.

황성군, 황성군산림조합(조합장:양재관)과 강원일보사는 식목 시즌을 맞아 나무 나눠주기 행사와 식목일 식목 행사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군은 당초 긴축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 나무 나눠주기 예산을 줄였지만, 백년대계 산림 조성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다시

9개 읍·면별 순차적 진행
주민에 3천 그루 배부 예정

예산을 마련해 9개 읍·면에 배분하고 올해 식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올해 군과 산림조합은 모두 3,000그루의 나무를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9개 읍·면별로 차례로 진행 중이며, 2일에는 오전 10시 서원면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에는 갑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식목일인 5일 황성읍 학곡리 산143 일원 1.6ha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양재관 황성군산림조합장,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로쇠나무 1,920그루를 심는 식목 행사도 열린다.

강원일보 창간 70주년인 2015년부터 특별 기획 ‘강원을 푸르게, 더 푸르게’ 프로젝트를 계기로 시작된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는 그동안 황성지역의 산림 가꾸기와 식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한몫해 왔다. 유학렬기자

江原日報

2024 04 02 ()

13

속초 친환경 아파트 대폭 늘린다

【속초】속초시가 시민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확대해 시행한다. 건강친화형 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해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건축자재 사용 비율 확대
흡방습·흡착·실내 항균 등
30% 이상 확대 건설해야
100세대 이상 기준 강화도

특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 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시는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을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실내 항균 광이·항균 건축자재를 5% 이

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 또한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속초지역 아파트 건설이 100세대에서 500세대 사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번 달부터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사업계획 승인 권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

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 사용 등 6개 항목을 의무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은 10% 이상, 실내 항균광이·항균 건축자재 비율은 5% 이상을 권장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은 물론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개선해 입주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江原日報

2024 04 02 ()

15

정선 명품 전통시장 일제히 개장

【정선】국내 최고의 명품 전통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선아리랑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들이 이달 들어 일제히 개장한다.

정선아리랑시장 5일장은 2일부터 올 11월까지 매 끝자리 2일과 7일, 그리고 관광객이 몰리는 토요일마다 5일장이 열린다. 임계면 임계사통팔달시장은 오는 20일부터 매 끝자리 5일과 10일마다 5일장을 열고 다채로운 이벤트로 고객 맞이

정선아리랑시장 5일장, 2일부터 고객 맞이 나서
임계사통팔달시장도 매 장날마다 공연 등 풍성

에 나선다.

정선아리랑시장 상인회는 오는 12일 5일장 개장 기념 번영지원제를 시작으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공연을 비롯해 품바 공연,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떡메치기와 노래자랑 등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개장을 축하

하기 위한 정선아리랑시장 상인들의 축하 무대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어 정선5일장을 찾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임계사통팔달시장 역시 20일 개장에 이어 매 장날마다 장터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통기타페스티벌 개최지의 특

색에 맞게 다양한 통기타 공연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미영 군 경제과장은 "최근 위축된 지역상권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5일장 일제 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선군 전통시장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2024 04 02 ()

江原日報

13

인제 남북리에 도시생활공원 조성

군농업기술센터 부지 활용
원형극장·음악분수 등 건립
인제읍 시가지 활성화도 탄력

【인제】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옛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가 내년이면 도시생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5월 군농업기술센터가 인제읍 덕적리 소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남북리 옛 청사는 38년 역사를 뒤로하고 올해 초 철거됐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옛 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구상에 착수했으며, 2025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도시생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3만5,000㎡의 공원에 중앙 잔디공원을 중심으로 원형극장과 노단식 소극장, 음악분수, 숲



◇내년 도시생활공원으로 탈바꿈할 구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부지 전경.

그늘쉼터 등이 만들어져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자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며 군이 추진하는 인제읍 시가지 활성화 계획도 탄력을 받았다. 군은 2021년부터 ‘인제읍 시가지 경제활성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제읍 도시생활공원은 인제기적의도서관, 하늘내린센터, 박인환문학관, 인제잔디구장, 인제디목적구장 등 지역 문화·체육시설과 인접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 19

의료공백 종식 시급하다

-필수·공공의료 후진적, 의사수 확대 차질없어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반발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심지어 일각에서는 1년을 내다보는 등 장기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라며 통계와 연구를 검토하고, 현재와 미래 상황까지 살펴 나온 수치로 집단행동 즉각 중단을 뼈대 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처리를 밝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다수 의사 측과의 대립 격화로 인한 국민과 환자 피해 확대를 우려합니다.

어제 담화는 의사단체 등에서의 여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와 이유를 들어 설명 반박하고 있는데다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공적 책무를 주로 강조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 해소를 위해 20년 후 2만명 증원이 목표임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의료계에서 근거도 없이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의사직역 카르텔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의사 힘에 밀려 철회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

하지 못하는 현실과 지역의료 강화를 언급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2월 19일부터 전공의 중심 근무지 집단 이탈을 시작으로 한달 반 가까이 의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충북 보은에서 물에 빠진 33개월 어린이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되지 못했으며 결국 목숨을 잃어 비통해하는 가족 영상이 보도되며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열악하고 부실한 지역의료 상황에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제2, 제3의 환자 사망사고 발생이 반복될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더욱이 전공의의 빈 자리를 감당해 온 대학병원 교수까지 어제부터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외래와 수술 축소에 들어갔으며 병상 가동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동네의원 의사들도 준법 근무 형태로 동참기로 해 여러 모로 악화되는 중입니다.

거주지와 소득 격차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는 중요한 사회의제로 후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대 증원은 긴요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환자 피해 발생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희생 감수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과 정치력 발휘로 더 이상 국민 피해 없이 정책 목표에 접근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02 ()

/ 19

강원FC 홈경기 열기 이어가야

-관중석 매진, 상권 스포츠 특수 누려

강원FC와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4라운드 춘천 홈경기가 열린 지난 31일, 경기장 일대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무승부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응원 열기는 국가 간 대항전을 방불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지역 상권 도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홈팬은 물론, FC서울 팬까지 합세하면서 시내 전 지역이 북적이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춘천의 하루 유동 인구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체육 관계 기관은 이런 스포츠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날 경기는 관중석이 전석 매진되며 춘천 홈경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차례 오픈한 온라인 입장티켓 9725장이 소진됐고, 현장 판매분 926석도 매진돼 총 좌석 1만651석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이로써 강원FC는 2018년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첫 '만원 관중'을 달성했습니다. 총 유료 입장객은 1만144명으로, 역대 최다 3위에 올랐습니다. 1위와 2위는 지난 시즌 강릉에서 열린 수원 삼성전 1만1084명과 수원FC전 1만503명입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춘천에서 복무 중인 그룹방탄소년단(BTS) 뷔가 함께 관람해 분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의 열기는 시내 상가로 연결됐습니다. 인근 카페에는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의 발길이 이어져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손님이 늘었습니다. FC서울 팬들은 경기장 앞 푸드트럭과 시내 닭갈비 막국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팬들에 이어 상춘객까지 몰려 인근 식당에는 평소 주말보다 20% 많은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은 불경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 경기 같은 행사가 있는 날은 손님이 늘어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FC의 경기력 향상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만큼, 공격적인 플레이로 승률을 높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홈경기가 열리는 도내 지자체는, 관중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경기 당일 교통 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 전후에 즐길 수 있는 야외 이벤트도 필요합니다. 지역 상인과의 소통을 통해 시즌 내내 특수를 이끌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4 04 02 ()

/ 19

보이스피싱 피해 141억원, 철저 수사 뿌리 뽑을 때

강원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건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736건, 피해액은 141억여원에 달했다. 전년(760건, 172억여원)보다 범죄 발생은 줄었지만 1건당 피해액은 1,917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은 금융 당국이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포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방지책이 잇따르자 저리 대출 등을 핑계로 돈을 직접 받아 가로채는 대면편취수법이 등장했다. 여기에 이른바 ‘택배 사칭 문자(악성 코드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거짓말)’를 짜서 접근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SNS 대화 기록으로 주변인 이름, 전·월세 계약 등 근황을 파악해 그럴듯하게 전화를 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돈을 일순간에 잃고 심지어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증가 추세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에 당한 사람을 쉽게 찾을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도 이제는 성별

이나 특별한 연령대가 없다.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을 방법이 시급하다.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범죄 수법은 그 위를 날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찾아 씨를 말려야 한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며 날로 활개 치는 범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누구라도 자칫 방심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그물망에 걸려들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약자일수록 더 취약하고 한번 걸려들면 그 타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회복 불능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범죄는 한때 코미디 방송의 소재가 될 정도로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널리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럼에도 피해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모집책, 현금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여서 단속을 벌여도 몸통을 제거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 적용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재산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범죄 대응 역량을 총집결해 보이스피싱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와 단속의 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江原日報

2024 04 02 ()

/ 19

2,000명 증원 쟁기, 이젠 醫·政 대화로 풀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2,000명 증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은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 더 이상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의대 교수들은 면

허 정지로 전공의들을 협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사직서로 환자들을 볼모 삼아 더 큰 협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하는 의사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지역·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보은군에서 생후 33개월배기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이 의료공백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간 누적돼 온 지역별 의료 격차와 중증 응급환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위기를 또 한 번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70여일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과 정부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들은 이제라도 공식 대화 창구를 만들어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 해도 의료개혁을 환자를 볼모로 지연시키는 행태에 국민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고 대화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들은 낮은 임금에 주 평균 80시간을 근무하며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운영을 떠받쳐 온 직군이다. 진작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어야 했다. 무슨 일이든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양쪽의 입장이 공평하게 개선되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갈수록 상황은 비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깊어지며 강원지역 대학병원들이 외래진

료까지 축소하고 있다.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인력 과부하가 심화됐기 때문이지만 외래진료 축소 탓에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윤 대통령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의사들, 집단행동 중단 대화 창구 만들 때

'강 대 강' 대치 이어가면 피해는 결국 환자들

것으로 보인다. 강원대병원도 1일부터 교수들이 진행 하던 외래진료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환자들의 대기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담당교수 판단 아래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최대 규모 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외래진료는 유지 하지만 병동 2개를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의대 증원이 확정돼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지만 이것이 모든 절차의 끝은 아니다. 대화의 끝을 의미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쟁점은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 증원 이후에도 정부와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비롯한 모든 현안을 놓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